

農漁村地域 綜合開發事業의 意義와 必要性

高 在 君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教授)



農漁村地域 綜合開發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따라 都市와 農村間에 所得뿐만 아니라 社會環境의 격차로 인하여 離農現狀이 深化되고 있어 농촌의 過疏化를 방지하고 農業의 安定的 基盤을 다지기 위하여 農家の 소득을 더욱 증대하고 農村의 社會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보다 잘 살고, 살기 좋은 福祉農村 建設의 意志가 담겨 있어야 한다.

이 농어촌지역 綜合개발사업은 過去의 農業開發事業과는 달리 國土計劃에 있어서 定住生活圈 開發計劃 次元에서 농업개발과 농어촌사회개발을 體系의으로 계획한 綜合開發事業으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均衡있는 발전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해주는 農村近代化 事業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업은 농촌지역 妨妨谷谷에 확산되어 遂行될 때에 先進祖國이 건설되는 國家的 課業이기도 하다.

그 동안 시행한 농업개발사업과 농어촌사회개발사업을 概觀하여 보면, 농업개발사업은 사실상 農家 爲主의 개발사업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즉, 主觀의 自給達成이란 大命題下에서의 農業政策에 따라 농업개발사업은 쌀 增産에 焦點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農家 이외의 밭농사, 酪農, 畜産, 園藝, 蠶業 등 餘他 農業開發은 소홀히 되어 왔다.

이리하여 쌀 생산에 있어서는 營農技術이 높은 水準에 달하고, 農地基盤造成도 擴充되고, 營農機械化도 정착화 되어, 그 成果로 國民의 宿願이던 主곡의 自給달성이 '80년부터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농어촌사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農水産部가 농업개발사업에만 執着한 나머지 이 사업에는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였으나, 1970년에 內務部에서 새마을 事業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부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새마을事業을 통하여 농촌의 住宅改良, 聚落構造改善, 簡易上水道, 마을 가꾸기, 食生活改善 등 생활환경개선과, 새마을工場 소득사업支援, 새마을金庫, 購販事業 등 所得事業과 새마을指導者育成, 새마을運動의 組織化, 새마을教育 등 人力開發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農村社會開發에 새바람을 불어 넣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運動은 後進國(開發途上國)에서 農村社會發展에 산 敎訓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以上과 같이 우리는 農業開發事業을 통하여 主觀의 自給達成을 정착화 시켰고, 새마을事業을 통하여 農村社會發展에 轉機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60年代의 農村像과 비교한다면 隔世之感이 있는 先進 農村이 되었다고 敢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高度의 經濟成長에 따라 工業化, 都市化는 더욱 急速度로 進展되어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如前히 農村은 都市에 비하여 落後性을 아직도 窺치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앞으로 都市産業의 高度化에 따라 都·農間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展望이므로 이대로 農村을 傍觀 또는 放置한다면 農業生産의 安全的 基盤이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深化되면 農村이 폐허화 될 危機에 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徵候로서 농촌노동력이 不足한 現狀에서도 農村을 지켜야 할 젊은 層(男·女)일 수록 營農에 대한 意慾이 없고, 農村生活에 대한 愛着이 갈수록 상실되어 離農의 機會만 노리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營農後繼者를 양성하고 營農定着資金의 혜택을 주며 이밖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는 하지만 離農現狀을 막기에는 力不足이며 보다 根本的이고 積極的인 시책은 農村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農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는 앞으로의 농촌은 食糧生産基地로서만이 아니라 生活이 적당한 水準에서 보장되고 영위될 수 있는 人間定住空間으로서 높은 評價를 받을 수 있는 福祉農村이나 또는 田園都市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농촌 또는 전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過去의 단편적 농업개발사업이나 마을단위의 散發的인 새마을사업으로서는 開發에 限界가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次元的 開發方式으로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실시를 계기로하여 과거의 농업개발사업이나 새마을사업을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綜合함으로써 事業의 實効를 더욱 크게 거둘 수 있고 또 投資効率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自明의 事實이다. 또한 이 종합개발사업을 契機로하여 農政施策은 과거의 主穀增産 위주에서 農家所得增大 위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농촌사회개발을 포함하는 농어촌개발사업에 焦點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농가의 所得增大 여부는 사업의 成敗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하므로 所得源을 多樣化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開發意思를 충분히 反映하고 開發需要를 신중히 評價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소득의 증대방안으로는 所得源을 劃一化 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性에 입각하여 多樣化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生産性 向上뿐 아니라 農産物의 저장·가공·유통등 經營改善을 통한 間接的인 所得에도 注重하여 所得의 極大化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農業所得을 極大화하더라도 營農規模의 零細性으로 인하여 專業農家보다 兼業農家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마련이므로 農外所得의 增大는 宿命的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農家所得에 있어서는 農業所得보다 農外所得이 더 큰 比重을 차지할 展望이기도 하다. 그 實例로서 우리나라와 類似한 日本과 臺灣의 경우를 보면, 農外所得이 우리나라에서는 33.3%(’84년)에 不過하지만 日本에서는 80.7%(’83년), 臺灣에서는 64.5%(83년)로서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의 比率이 우리 나라와는 正反對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農家の 所得增大는 농업소득에서 보다 농외소득에서 增大方案이 多樣하고 深度있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思料된다.

農家所得이 크게 增大되었다고 해서 農村問題가 모두 解決되었다고 速斷을 내리는 것은 禁物이

다. 즉, 사람이 배가 고플때에는 배를 채우려는 慾心밖에 없지만 배를 채우고 나면, 단 慾心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農家の 所得이 增大되어 잘 살게 되면 다음에는 살기 좋은 農村社會環境을 바라게 마련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이 綜合開發事業의 意義와 必要性은 더욱 強調된다.

農村社會環境은 生活環境과 社會環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의 改善이나 開發에 대해서는 都·農間의 격차를 없애기 위하여 적어도 國土計劃에 있어서 定住生活圈開發計劃에 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農漁村地域 綜合開發事業을 契機로하여 農政方向의 轉換만이 아니라 農業工學에 대한 視角이나 認識을 새롭게 하여야 할것이다. '60年代까지는 農業開發事業에서 우리 分野로는 農地 基盤造成(농지개량)만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農業工學의 한 分野인 農業土木만이 참여함으로써 農業土木이 農業工學의 象徴이 되었으나 '70년부터 營農의 機械化가 推進됨으로써 農業機械分野가 참여하게 되자 農業工學은 農業土木과 農業機械로 認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그 事業內容이 多樣多岐하기 때문에 廣義의 農學全般에 걸친 學問과 技術이 관련되고 있다. 그 중에서 農業工學分野를 보면, 농업토목과 농업기계만이 아니라 농업건축(농업시설), 농업전기, 농산가공 등 農業工學의 各分野의 참여가 必然的이다. 따라서 이 遠大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을 通하여 農業工學의 各分野가 골고루 發展할 수 있어 農業工學의 學問과 技術의 眞價를 誇示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農工人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促求하게 되었다.

農漁村地域 綜合開發事業은 農村의 近代化 뿐만아니라 祖國의 先進化를 위한 國家的課業임을 다시 한번 強調하며 이 事業이 成功的으로 遂行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